

갈등 매몰 광주, 분권시대 경쟁 뒤쳐질라



꽃감이 주렁주렁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꽃감 건조대에서 한 농민이 맛과 향이 뛰어난 꽃감을 만들기 위해 감을 밀고 있다. 임영욱기자 6766008@hanmail.net

전북 새만금공항 조기개항·현대차 구애 총력
완성차 공장 설립·군 공항 이전 갈등 해법 난항
외자유치 전국 꼴찌 지역발전 위해 힘 모아야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 투자협약, 광주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광주 주요 현안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선7기 출범 100일을 훌쩍 넘겼지만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광주시가 각종 현안 갈등에 매몰된 사이 타 지자체는 지역의 역량을 총 결집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광주·전남과 함께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은 전북도의 행보가 특히 두드러진다. 광주가 더 지체했다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더욱 치열해진 생존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광주 외자유치가 5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국감자료까지 나오며 이같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만큼 광주가 강성 노조,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방증이다. ▶관련기사 5면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민선7기 전북도는 세계 5만여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새만금 세계 쟁버리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 등 대형SOC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중에서도 2023년 새만금 세계 쟁버리 대회 이전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개항이 최대 핵심 현안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국비 7천600억원을 들여 새만금 권역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5월 국토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돼 지난 3월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거쳐 현재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다. 애초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였으나 세계 쟁버리 이전인 2022년까지 앞당겨 조기 개항하기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와 내년도 예산확보에 전북지역 정치권, 지역사회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평화당 대표와 무소속 이용훈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이다.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 대신 무안공항 이용 문제가 거론된다면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라며 광주·전남을 겨냥한 민감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이 조기개항하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민선7기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오는 2021년까지 광주공항을 무안으로 조건없이 이전하겠다고 서둘러 합의한 것도 바로 새만금국제공항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하지만 지난 2일에서야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통합실무협의회가 개최되는 등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개선과 활주로 확장,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 등이 서둘러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의 모든 이익이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쏠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와 진행중인 무안공항 활성화 관련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초 이후에

나 구체적인 로드맵 구성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 불참으로 삐걱거리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현대차 완성차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협약도 군산시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가 쇠락하고 있는 군산시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정부와 현대차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구매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미 자동차 부품업체 등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임금을 낮춰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지역 내 의지도 높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지난 3월 '광주형 일자리 모델 군산 도입을 통한 기업 유치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이같은 유치 열망을 드러낸 것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타 지자체는 국책 사업을 서로 따오기 위해 경제성만을 따지는 현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개선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광주는 오히려 역행하는 분위기여서 안타깝다"며 "더 늦기전에 현안갈등을 서둘러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농산물 구매 외면

전남대병원·광주과학관·광주과기원 구입 전무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과 상생하도록 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공공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은 그나마 구매 실적이라도 있지만, 전남대병원과 국립광주과학관, 광주과학기술원 등은 아예 실적조차 없었다. 김중희 민주당평화당 의원이 22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2017년 공공기관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에 의하면,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대비 지역 농산물 구매율은 0~3%대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제정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 직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2017년 실적 이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4억7천407만원의 지역 농산물을 구매, 총 구매액 대비 구매율 3%로 이전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지역 농산물을 구매한 전국 122개 공공기관 중에서는 구매액 기준으로 9위였다. 지역 농산물 구매율 전국 1위는 33억1천6천199만원(24%)을 구매한 경북대병원이다. 이어 한국KPS(전국 구매액 순위 18위)는 1억3천947만원으로 각각 구매율 1%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2위)는 1억

858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47위) 3천478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51위) 3천83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74위) 996만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89위) 562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102위) 280만원, 아시아문화원(107위) 241만원, 한국전력거래소(110위) 200만원 등이었다. 이들 기관은 총 구매액 대비 구매율이 0%로 나타났다. 이전 공공기관은 구매 실적이라도 있지만, 전남대병원과 국립광주과학관, 광주과학기술원은 아예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았다.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2면에 계속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기금 집행률 8.4% 불과

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 기업들로부터 1천250억원을 걷어 기금을 조성했지만 집행률은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특별구제제정 기금은 전체 1천250억원 중 104억7천400만원만 162명에게 지급됐다. 이달 5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조사·판정 결과 폐손상 1~2단계 등 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 '높음'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679명이다. 유형별로 폐질환 468명, 태아피해 26명, 천식 피해 195명(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 2명,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 8명 제외) 등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2면에 계속 뉴스

광주·전남 우수조합 대상 공모

성공사례

'광주·전남 우수조합 대상'은 광주·전남지역 농수산 조합의 복지와 혁신경영 그리고 소득증대 분야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표창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농수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상 조합에 한하여 「광주·전남 우수조합 성공사례」 도록을 제작합니다. 광주·전남지역 조합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천을 바랍니다.

| 수상 부문 | ·경영혁신부문 ·경영성과부문 ·경영비전부문

| 공모 대상 | 광주·전남 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

| 접수 마감 | 2018. 10. 31(수) **접수마감연장**

| 공적평가기간 | 2015. 3월 ~ 2018. 10월

| 목적심사 | 2018. 11. 8(목) ~ 9(금)

| 수상자 발표 | 2018. 11. 13(화) 무등일보 지면

| 시상식 |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11. 26(월) 15:00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정양식, 당사 홈페이지 www.mdilbo.com)

| 접수 및 문의 | 무등일보 사업국 062)606-775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등일보 홈페이지 www.mdilbo.com을 참조하세요.

수상조합 「광주·전남 우수조합 성공사례」 도록 제작

주최·주관 무등일보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